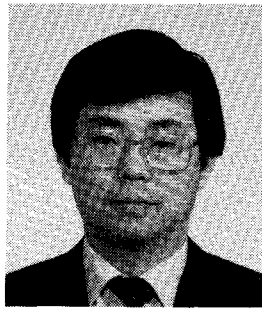


## 경기도 가평군의 소규모 재래식 목장 편



김 동 균  
상지대 축산학과 교수

### 1. 가평의 입지조건과 낙농

가평군은 전체 땅의 81퍼센트쯤이 사람의 손길이 크게 미치지 않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남쪽 일대에는 경춘선을 끼고 협곡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이곳을 양평과 더불어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가평군은 논과 밭이 전체 땅의 9.6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농업 종사인구의 비율은 다른 어느 군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 가구당 경지면적은 워낙 인구밀도가 적기 때문에 전국 평균수준보다 약 삼십퍼센트가량 더 많

다. 가평의 특산품중에 잣을 으뜸으로 치는데 그 생산량은 전국의 절반에 가깝다. 그리고 청평 발전소의 매력 못지 않게 청평호 주변에는 가두리 양식장들이 전을 벌여놓고 서울 사람들의 미각을 유혹하고 있다.

가평 하면 청평목장이 연상될만큼 칠십년대의 청평목장은 명성이 높았었다. 당시의 청평목장 주인은 우리 업계에서 풍류객으로도 유명하였지만 개성있는 목장경영을 시도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풍치 좋은 곳에 그림같은 목장을 지어놓고, 칠십년대 벽두에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하베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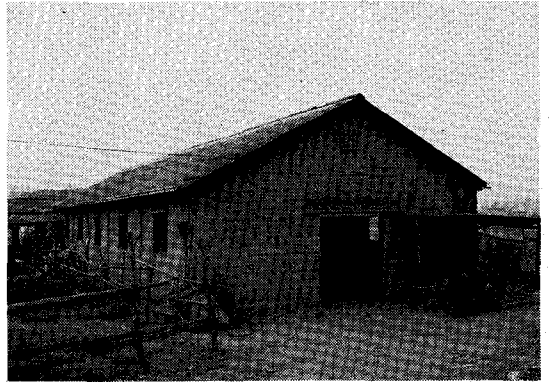
(Harvestore)를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세계적으로 정평있는 고기맛을 내는 “샤로레이”종을 이백두나 도입하여 한우와의 교잡종을 생산하여 전국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 웅대한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제1대 교잡종이 발육성적이거나 육질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품종 자체가 대형종이었으므로 난산율이 매우 높았고 소의 기질이 한우와 달라 당시의 사육경험으로는 일반 농가에서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비자에게 그런 희귀한 고기가 비싼 값으로 잘 팔릴 까닭이 없었다. 어쨌건 그는 멋있는 축산을 하려다가 고인이 된 지 오래이거나와 그 소들은 그가 죽은 얼마 후에 제주도 J목장이 인수하고 말았다.

가평군 일대는 낙농의 태동기부터 서울과 춘천에 우유처리장이 있었던 관계로 목장의 정착이 다른 지역보다 빨랐다. 그러나 설비면에서는 기존 목장의 형태를 답습 보급한 흔적이 많아서 산자수려한 풍경에 비하여 다소 누추한 느낌을 주는 곳이 많다(필자는 가평 일대의 목장 10여곳을 방문한 소감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목장의 명에는 존중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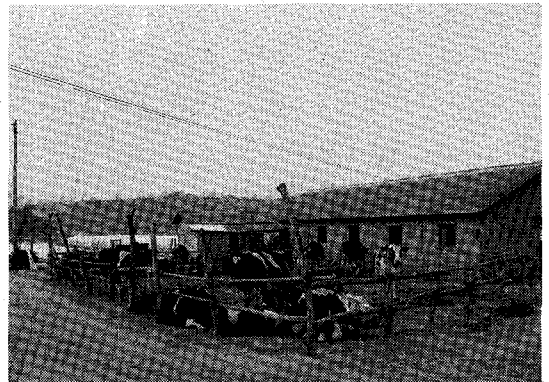
이번에 다루는 한 목장은 청평목장의 위세와는 상반되는 매우 낙후된 소규모 재래식 목장이지만 경영적으로는 부실하지 않은 곳으로 어찌면 이것이 우리의 낙농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골라보았다. 또한 문제점을 기탄없이 말하기 위하여 목장의 약호마저 철제한 가공부호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2. 대상목장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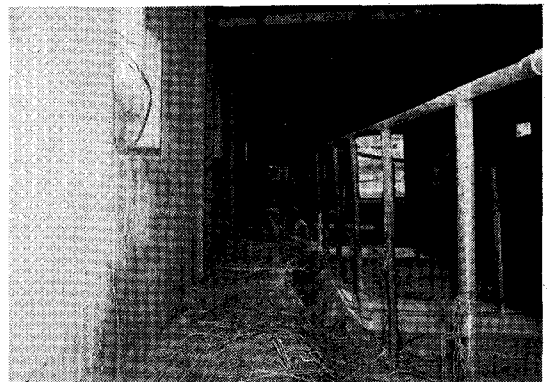
A목장은 4년 경력의 자영자가 관리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경영내역을 관찰했던 곳이다. 그들의 관찰에 의하면 88년 중반에 성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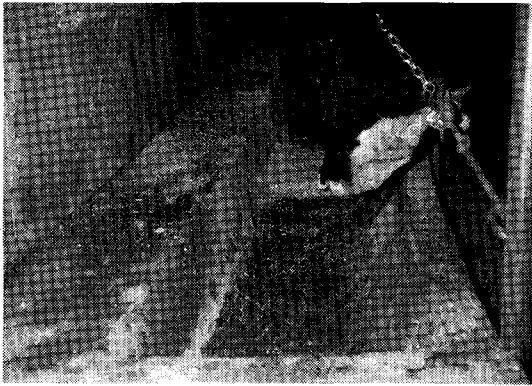
〈사진 1〉 A목장 우사의 외관(용마루나 처마에 어떠한 환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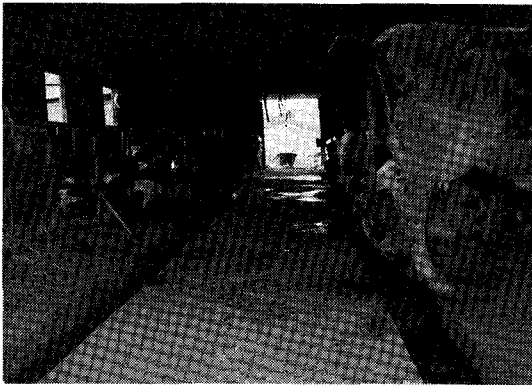
〈사진 2〉 비교적 넉넉히 배려한 운동장(배수가 양호하였다)



〈사진 3〉 급사통로와 사조(지나치게 좁아 사료의 허실이 많다)



〈사진 4〉 건너편 사조와 금사통로(잘 지나갈 수 있을런지)



〈사진 5〉 중앙통로와 배뇨구(규격이 작아서 흘리고 넘치는 일이 많다)



〈사진 6〉 우공의 휴식지세(항상 목을 들고만 있어야 한다)

두(착유우는 7두였음)와 송아지 8두를 가지고 한달에 순 소득을 약 80만원 정도 올린다고 하였는데 유대를 가지고 두당 평균 일일 산유량을 추정했더니 약 17.5kg이었다. 즉, 조수입에서 사료비, 낙우회비 및 약품비 등을 공제한 결과가 보름에 40여만원이라는 것이고, 송아지의 판매대금은 별도의 수입으로 친 것이다. 물론 이 보고가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독신인 관리자가 철저한 절약정신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 집은 운동장 100평, 우사 50평에 경작지라고는 우사에서 1km 떨어진 곳에 사료포 2,000평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시설이 팔십년대 중반에 지어졌으나 내부 구조나 건물의 환경은 비좁고 음침하여 마치 고대의 유적을 방불케 하지만, 낙후된 우사설비에 비해 가축이 비교적 건강한 것은 규모에 비해 넓은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고, 짐승들이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3. 응색하게 지어진 A목장의 우사

시멘트 블록을 거칠게 쌓아 내부만을 미장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지붕과 벽면 어느 곳에도 단열재를 쓰지 않았다(사진 1). 헛간을 건물에 기대어 지은 점(이것을 전문용어로 lean-to addition이라고 한다)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문과 창문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환기는 이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건물의 방향은 정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에 여유있는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다(사진 2). 관리자는 이 운동장에 매일 한번씩 부드럽고 깨끗한 흙을 깔아 줌으로써 표면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우사 내부는 구분벽면이 없이 한 공간으로 개방되

어 있으며 이곳에서 사료 저장 및 급여, 송아지 사육 및 착유작업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건물은 한 마을에 사는 유명한 건축사가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그는 아마도 축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사진 3>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급사통로는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만큼 비좁고 (55cm), 사조의 폭은 36cm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소의 머리와 주둥이만 보고 치수를 정한 듯하고, 그나마 반대편 우상쪽은 <사진 4>에서와 같이 사료포대를 들고 서 있기조차 어려울 만큼 비좁았다. 사조의 바닥은 우상바닥보다 낮아서 사료 섭취 자세가 불량한 것도 문제중의 하나였다.

분뇨구의 나비와 깊이는 각각 30×16cm였고, 우상의 길이는 155cm에 불과하여 <사진 5>와 같이 분뇨가 자주 넘친다고 하였다. 계류는 우상구분대에 부착된 사슬을 목거리에 거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채식통제시설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경우, 개체별 사료급여량을 조정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며, <사진 6>과 같이 휴식시에 목을 의지할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 4. 분뇨처리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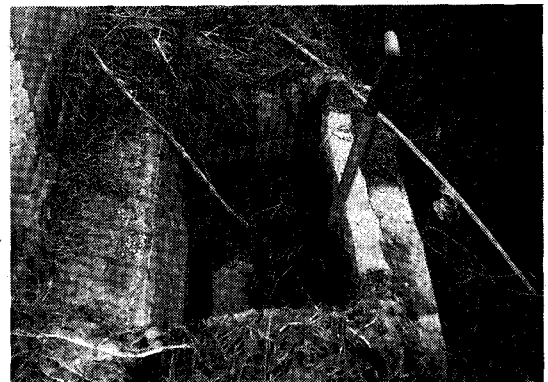
한편, 분뇨처리의 실태를 보면, 똥과 깔짚을 각삼으로 치운 것을 우사 한 옆의 공터에 야적하였다가 사료포에 내고 있으며 야적장의 바닥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다<사진 7>. 그리고 오줌과 잔량의 분뇨는 우사북벽 중앙에 마련된 뇨조<사진 8>를 경유하여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사진 9>의 포크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 과정에서 건더기는 수시로 건져올려 지겠지만 결국 그 용액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사진 10>. 이 과정은 우리나라 소규모 목장의 현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그렇다고 영세한 목장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이 집의 경우 최소한 2백만원은



<사진 7> 퇴비 야적장(일대의 토양이 썩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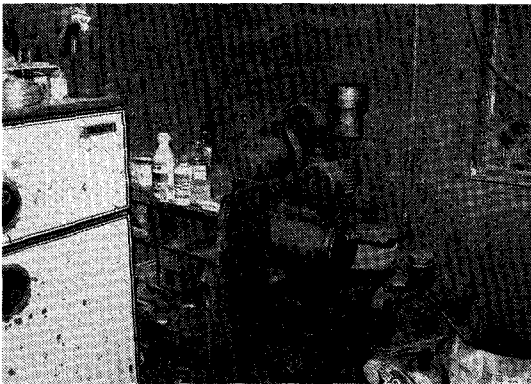
<사진 8> 북쪽 벽면과 뇨조(우측 세번째 창문 아래에 있다)



<사진 9> 뇨조와 포크(고형물을 수시로 건져낸다고 한다)



〈사진 10〉 폐수로 오염된 뒷 개울



〈사진 11〉 착유용 진공펌프의 관리실태(먼지로 뒤덮여 있고 약품  
장이 이웃해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 정화처리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시에 구속하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오염하천의 유입처에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테임즈강 주변의 목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설비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원하였음을 당국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취한다면 뇨조 뒷편에 단계 정화시설을 하거나 누출폐액을 임시로 계류할 웅덩이(lagoon)를 깊이 1m, 넓이 두당 20㎡ 수준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비장의 바닥은 최소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야 한다.

## 5. 착유설비와 관리자의 복지

우사 한 구석에 진공펌프와 약품 그리고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으며〈사진 11〉 착유기는 그 바로 옆에 이어지는 우상 파이프에 걸쳐 건조시키고 있다〈사진 12〉. 그 맞은편 구석에는 거금을 주고 구입한 360L 용량의 냉각기가 조심스럽게 모셔져 있다〈사진 13〉. 냉각탱크가 나무평상 위에 올려진 것은 아마도 집유 차량이 못 들어 올 경우에 우유통에 다시 담아 통과 지점까지 운반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영세농가는 기계 설비의 관리소홀이나 착유위생에 대한 인식의 미흡으로 기계고장 또는 불합격 유의 판정으로 고심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웅색한 설비 체계는 영세농가의 검약성과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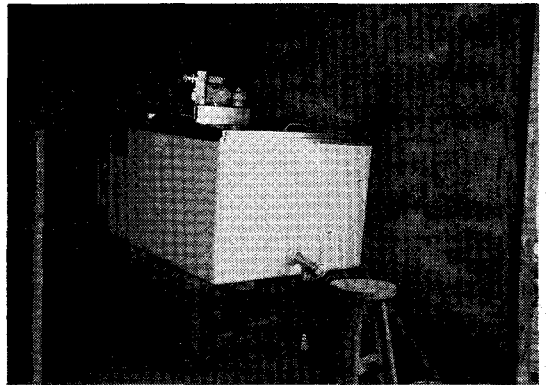
우리가 더욱 눈여겨 볼 점은 이러한 영세농가의 생활상이다. 즉, 농업 종사자 특히, 가축을 기르는 양축가의 생활환경이 현대 도시 생활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침마다 식탁에 올려지는 신선한 우유를 마시는 도시인들은 그것이 어떠한 고난 밑에서 얻어지는 산물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하고 먹을 일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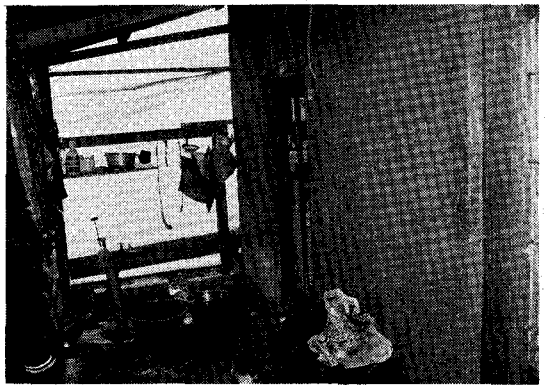
〈사진 12〉 중앙의 문을 열면 관리자의 침실이 나오고, 그 뒷결은 부엌과 아궁이로 이어진다(사진 14). 이 목장의 주인은 비록 초라하고 불품없는 거처일망정 소 기르고 젖짜는 낙으로 불편을 이기며 산다고 했다. 이 주거 환경은 도시빈민의 그것과 다름이 없으며, 농촌총각이 혼인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장만해 놓고 낭만을 즐기는 낙농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대개 도시자본가의 후예들이거나 규모가 넉넉한 부농의 몫일 뿐 진정한 농민 후계자들은 오늘도 흙과 가축에 묻혀 조악한 환경을 견디며 소명을 다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사진 12〉 우유통과 착유기의 건조상태(우상 구분용 파이프 위에 걸려 있는데 먼지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13〉 냉각탱크의 관리상태(좌측 파이프부터 우상이 연결된다)



〈사진 14〉 관리자의 주방과 세면장(농촌 총각의 애환이 서려 있다)

